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 개최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 부대행사로 진행... 드론축구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재확인

전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 국제 레저 스포츠 산업전에서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성황리에 치러내면서 드론축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주시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드론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18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8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이하 'SPOEX')'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4번째를 맞는 이번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13개 지부 산하 16개 팀, 총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국 최강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우승팀은 '팀 스펙터 H 선수단(창원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포항 TEAM K 선수단'과 '포항 드론축구 선수단'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 공동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균의 캠티종합기술원장이 참석해 수상팀 선수단을 축하했다.

시와 캠티종합기술원은 이번 SPOEX 행사 개막일인 지난 22일부터 폐막일인 25일까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드론축구를 알리기 위해 이동식 전용 경기장을 설치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



전주시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드론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18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8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으로 한 시범 경기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는 헬스와 피트니스, 캠프 등 국내·외 레저스포츠 용품 및 아이템들이 한 데 모인 국내 최대 규모 레저스포츠 국제 산업전에서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성공리에 열리면서 세계 최초

로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활약 무대를 넓힐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 제조 및 가공 조립 시장 대비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최대 8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

황에서 드론축구가 레저스포츠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열고 있다"며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 예술 공연과 드론 관련 R&D 및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전주를 드론 메카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교대, 2018학년도 입학식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6일 교내 황학당에서 총 374명(학부 303명과 교육대학원 71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학부 오지수(컴퓨터교육과) 학생과 교육대학원 김서현(초등국어교육전공) 학생의 입학허가 선언과 김우영 총장, 최홍규 교육대학

원장, 황호공 동창회장이 대표 학생들에게 교표를 수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우영 총장은 입학식을 축하하며 "입학생들이 4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학문 정진과 다양한 대학생활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훈시했다. /채규남 기자

공무원 '디딤-도움' 결연식

신규 임용자 97명 · 초임 행정실장 38명 디딤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 오후 3시 전주 N타워 컨벤션 웨딩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도 디딤도움 결연식'을 개최했다.

디딤도움은 '디딤이'와 '돕다'의 조합으로 후배 공무원(디딤이)이 선배 공무원(도우리)을 디딤돌 삼아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잠재력 발현을 극대화함으로써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제도다.

신규 임용 공무원과 초임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키워 직장생활에 원활한 적응을 돕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2016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신규 임용자 과정의 경우 2017년 7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육행정직, 사서직, 시설직(건축)과 공업직(기계·전기) 공무원 등 97명을 디딤이로 선발해 경험과 업무지식이 풍부한 도우리 59명이 1년간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초임 행정실장 과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행정실장으로 첫 발령이 난 38명의 디딤이를 대상으로 18명의 도우리가 1년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평소 도우리는 업무지식과 경험을 디딤이와 공유하고, 상담 및 조언 등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며, 디딤이는 도우리와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제시하며, 개선사항을 건의한다.

이날 결연식은 디딤이와 도우리가 처음 만나 서로를 알고, 서약식 등을 통해 디딤도움 관계를 다짐하는 자리로, 최홍규 부교육감은 공무원 역량 강화에 관한 주제로 강의하고, 성공적인 디딤도움 운영을 부탁했다.

도교육청은 디딤도움을 통해 디딤이와 도우리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조직문화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하여 전북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이항근 전주교육장, 학교와 소통 행보

교사와 직접 소통하는 '공감-톡(talk)' 운영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학교 현장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가는 '단위학교-교육지원청 공감-톡(talk)'(이하 '공감-톡(talk)')을 운영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공감-톡(talk)'은 관내 학교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지원'이라는 교육지원청의 본질적 역할을 실천적으로 접근하려는 이항근 전주교육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3개 중학교에서 진지하게 진행했으며 신학기에도 연중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톡(talk)'의 특징은, 단위학교 관리자는 물론 희망 교사가 참여하고 학교에서 협의 요청하는 관련 업무담당 장학사들과 과장, 교육장이 한 자리에서 만나, 학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놓고 해결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집단토론(집담회)의 성격을 가진 점이 특징이며, 이는 장학사와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교사만 만나 자칫

형식적인 업무해결 컨설팅에 머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 핵심이다.

'공감-톡(talk)'을 통해 학교에서는 그간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운 점, 요청사항 등을 진지하게 털어 놓았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 하나하나 해결을 추진해 감으로써 단위학교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모든 학교의 공통 토론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학생안전관리, 아직도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 업무경감 문제 등이 나왔고, 대규모 학교의 학교경영상 애로사항, 과도한 급당 인원 및 시설 부족, 교원 인사점수 개선 요청, 교권 신장, 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은 좋아졌으나 사서교사가 없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등은 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포대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미달문제 해소에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민근 기자

우수인재 ·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전주인재육성재단, 3월 5일~16일까지 사무국 방문 · 접수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2018년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및 청소년 자립 지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17명과 도내 대학생 29명, 도외 대학생 13명, 특기장학생 5명 등 총 64명이며 장학금액은 1인당 고등학생 130만원, 대학생 및 특기생은 20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26일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 시민의 자녀로 고등학생은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또 대학생은 전북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취득한 대학생이고 특기생의 경우 도내 초·중·고등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성적 요건은 직전학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특기생은 전국 경진 대회 1위 입상인 학생이다. 이와 함께 전주인재육성재단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교육법에서 정

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조·부모 세대, 저소득 모자·부자 세대, 차상위 계층 청소년 중 10명을 선발해 1인당 130만 원의 청소년 자립 지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 기준은 학교장 추천 학생 중 가족 구성 30점과 생활 정도 7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에 자원봉사 실적 시간을 가산점으로 최대 1.5점 범위 내에서 반영해 평가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에 위치한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063-281-5082)에 직접 방문 · 접수하면 된다. 청소년 자립 지원 장학생은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jinjea.kr) 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